



Book Start 운동으로 지식과 생각을 나눈다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 성전회 도서실

- 독- 서할 시간이 없으시다구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 서- 점이 너무 멀다구요? 가까운 성전회 도서실이 있습니다.
- 운- 동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독서는 마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 동- 참하시겠어요??

2005년 4월부터 'Book Start 운동'을 시작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서운동' 시행시를 공모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VD사업부 지원그룹 이성욱 사원의 시행시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책 읽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Book Start 운동'은 본인이 읽은 책을 릴레이 형식으로 동료에게 추천해 함께 읽고, 지식과 생각을 나누는 독서운동이다. Book Start 운동을 참여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삼성전자 도서관리 시스템인 '문헌정보Glims'에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성전회(星電會) 도서실에서는 예약현황을 통보해 준다. 독서운동을 참여하는 직원들은 '나의독서노트'에다 '독서 후 소감'과 '좋은 글 밑줄 긋기' 란에 자유롭게 독후감을 쓸

- ① 어린이 추천도서는 전체 도서 이용률의 20%를 차지한다.
- ②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대출반납시스템.
- ③ 9천개의 DVD를 보유하고 있다.
- ④ 30년 역사를 지닌 성전회 도서관.



수 있다. 독후감도 써서 모아두면 도서상품권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참여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 중 잘 쓴 독후감을 모아 《책 속에서 미래를 찾자》를 엮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전회 도서관으로 삼삼 오오 몰려왔다. 수원사업장 내에는 네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세 개는 기술도서를 중심으로 한 전문도서관이고, 성전회 도서관은 교양과 문화 고취를 위한 공간이다. 대출 분야의 인기를 보면 재테크, 처세서, 소설분야이다. 하루에 250명에서 많게는 300명이 이용하고, 대출 권수는 하루에 500~800권이라고 한다.

30년 역사를 지닌 성전회 도서관은 1만 2천 권의 장서와 9천 개의 DVD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어린이추천도서 서가는 다른 서가보다 눈에 띈다.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아이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씬씀이를 엿볼 수 있다. 어린이 추천도서는 전체 도서 이용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도서관 안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우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출반납시스템이다. 인사팀 김기선 대리가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이 시스템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오늘 날짜에 파란색 자석단추를 옮겨놓고, 빨간색의 자석단추를 반납날짜에 옮겨놓으면 사서와 책을 빌리는 직원이 반납기간에 대한 말이 오가지 않아도 알아 볼 수 있다. 사업장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Book Start 운동' 포스터도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모델로 활동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이 외에도 '책 바꿔보기 장터'를 운영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책을 교환해서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책꽂이에 방치해 먼지가 쌓여있는 책을 가져오면 새 책이나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인사팀 김기선 대리는 "2007년에는 'Book Start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 한다.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하여 사원들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것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

